

대표로 출발을 하였으며, 제도 혁명당에 맞서는 주도 반대 세력으로 활동을 하다, 2000 년 멕시코 녹색 환경당 (PVEM, Partido Verde Ecologista de Mexico)과의 대통령 선거 동맹으로 인하여 폭스정부를 탄생시키며 주도 세력으로서 2012 년까지 활동을 하였다.



Texcoco

많은 기대와 함께 출발한 국민 행동당은 2001 년 **비센테 폭스** 선거 공약중의 하나인 멕시코의 주요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초(前哨) 작업으로 추진한 멕시코시티 (Ciudad de Mexico) 인근의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의 텍스코코 (Texcoco)에 대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4 천 5 백평에 대한 국가 귀속으로 시작하는 듯하였으나, 1 제곱 미터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7 페소 (한국돈 700 원)와 많은 농민들의 시위 및 국가 귀속에 대한 헌법성의 논란등으로 인하여, 결국 2002 년 8 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철회하는 것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개명되어 연방 경찰 (Policia Federa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유괴, 마약, 조직 범죄, 무기 밀매등과 같은 강력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을 목적으로 하여 아직까지도 멕시코 한인들의 뇌리(腦裏) 속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AFI (Agencia Federal de Investigacion)라는 연방 경찰도 2001 년 형성되었으나, 2006 년 펠리페 칼데론에 의하여 재정비되기까지, 소속 AFI 중 25%이상이 범죄에 연루되어있는 혐의 및 정치 탄압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역사속에서 깨끗한 정권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라는 한국(?)과 동일한 각오로 출발한 정부는 정권 말기 비센테 폭스 대통령 두번째 영부인 마르타 사하군 (Martha Maria Sahagun Jimenez)의 아들 (Bribiesca)의 비리에 의하여 무참히 깨지며 그밖에 그나물이라는 속담을 무색하게 하지 않았다.



Martha Sahagun



Bribiesca

또한,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속한 국민 행동당 (PAN)을 위하여, 2006 년 대통령 선거의 중립성을 깨면서까지 관여한 선거 관여는 민주 혁명당 (PRD, Partido de la Revolucion Democratica) 지지자들에 의하여 현재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Irony)하게도 2012 년 7 월 현재 전임 대통령 비센테 폭스는 국민 행동당 (PAN)을 배반한 배반자로서 정당측 관계자 및 지지자들로부터 낙인(烙印)이 찍혀져 있다.



Felipe Calderon



Lopez Obrador



Roberto Madrazo

펠리페 칼데론으로 대표되는 제 2 기 국민 행동당 행정 집권부는 2006 년 7 월 대통령 선거 바로 직후부터 부정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출발한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투표율을 본다면 국민 행동당 펠리페 칼데론 (35.89%, 15,000,284 표), 민주 혁명당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 35.33%, 14,756,350 표), 제도 혁명당 로베르토 마드라소 (Roberto Madrazo Pintado, 22.26%, 9,301,441 표)으로서, 펠리페 칼데론과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표차이는 1% 미만인 0.56%의 근소한 차이인데, 투표후에 투표 용지가 없어지거나 무더기 투표 및 대리 투표되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투표함까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비디오로 촬영되어 영화로까지 상영되었음) 개관 오분전 (?)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IFE, Instituto Federal Electoral) 및 연방 선거 관련 전문 법원 (TEPJF, Tribunal Electoral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on)에 까지 가서, 투표의 법적